

중국 국가 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성과

작성자 : 이유신 (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)

작성일: 2013년 9월 9일

■ 중국 국가 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

- 지난 9월 3일부터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중앙아시아 4개국(투르크메니스탄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) 순방길에 오름.
 - 이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투르크메니스탄을 가장 먼저 방문
 -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9월 5일과 6일 러시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도 참석
 - 시진핑의 최종 방문국은 키르기스스탄으로 이곳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13일 상하이협력기구(SCO) 정상회담이 열림.
- 일부 언론들은 중국 국가 주석이 중앙아시아를 방문하는 주요 목적을 자원외교의 강화로 규정
 -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과 가스거래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협정을 체결
 - 이외에도 시진핑 주석은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갈키니쉬(Galkinish)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에서 유향을 제거하는 석유화학 플랜트의 준공식에 참석(참고로 갈키니쉬 가스전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LG상사와 현대 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09년 석유화학 플랜트의 일부 프로젝트를 수주)

■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체결한 주요 합의 1: 가스거래량의 확대

-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CNPC와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gaz는 양국 간의 가스거래량을 추가로 매년 250억 입방미터 늘리는데 합의
 - 이 합의에 대한 예비협정은 지난 2011년 11월에 체결됨.
 - 당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예비협정에 서명
 - 따라서 이번 합의는 이전에 체결된 예비협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임.
 - 이로써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거래량은 매년 650억 입방미터로 늘어날 예정
 - 이 양은 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장 많은 가스를 수입한 해인 2008년의 수입량보다 많은 수치임
 - 당시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470억 입방미터 달하는 가스를 수입

■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체결한 주요 합의 2: 새로운 가스관의 건설

-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체결한 두 번째 주요 협정은 새로운 가스관의 건설임.
 - 중국은 지난 2009년 12월에 제1단계 공사가 완료된 중앙아시아-중국 가스관을 통해 2010년부터 가스를

수입해 오고 있음.

- 중앙아시아-중국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시작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시설임.
- 이 가스관은 현재 추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14년경에 공사가 완료되면 매년 4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.
- 따라서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매년 65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-중국 가스관의 용량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가스관을 건설해야 함.
-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.
- 현재 중국이 검토하는 노선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시작해 우즈베키스탄, 타지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시설임.

■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체결한 합의의 함의

- 앞에서 언급한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합의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러시아와 연관이 있음.
 - 우선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거래량이 매년 650억 입방미터로 늘어나게 되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급감할 것으로 기대
 - 현재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매년 100억 입방미터 수준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양이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.
 - 이렇게 되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임.
 - 이외에도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거래량 추가 증가 합의는 중국이 러시아와 양국 간의 가스거래에 대한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성사됨.
 -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중국 당국과 러시아 당국은 양국 간의 가스거래에 가장 큰 걸림돌인 가스가격 합의에 실패
 - 이렇게 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 가스시장을 선점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중국과의 향후 가스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.

※ 참고자료

“China to Provide New Loan to Turkmenistan for Galkinish Gas Field,” *Trend* (September 5, 2013).

“Gazprom Pipeline to China Delayed Until Q1 2014,” *Moscow Times* (September 4, 2013).

Ron Synovitz, “China's Xi Seeks Central Asian Ties for Energy, Security,” *RFE/RL* (September 4, 2013).

“Turkmen, Chinese Leaders Visit Gas Field,” *RFE/RL* (September 4, 2013).

“Turkmen, Chinese Presidents at Launch of Galkinish Gas Field,” *Trend* (September 4, 2013).

“Turkmenistan, China Ready to Join Tajikistan and Kyrgyzstan to Regional Gas Pipeline Network,” *Trend* (September 6, 2013).